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10호 / 3 월 12일

溫州 발전모델의 위기와 향후 전망

1. 개요

□ 중국 절강성 溫州 지역은 개혁개방 이후 대표적인 민간자본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로서 중시 되어 왔음.

- 1978년에서 2002년까지 온주시 GDP는 13억 위안에서 1,055억 위안으로 81배가 증가하였고, 연평균 GDP 증가율은 15.5%, 공업총생산 증가율은 22.4%를 기록하였음.

- 온주 발전모델의 특징은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없이도 민영기업이 시장 지향적인 창의성과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룩했다는 데 있음.

○ 온주인은 전통적으로 상업을 중시하였고, 개혁개방 초기에는 “4千정신(천신만고를 견디고, 千言萬語의 말을 하고, 千山萬水를 누비며, 千方萬計의 생각을 해내는 정신)”으로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, 그 이후에는 “4自정신(자주개혁, 자기위험부담, 자강불식, 자구발전)”으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끌었음.

- 2002년 온주시 전체 경제에서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76%에 달함.

□ 그러나 최근 온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타

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개혁개방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온주모텔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
2. 온주지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

□ 온주지역은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음.

- 1998년 이래 온주지역의 GDP 증가율은 1979~1997년 기간의 평균 GDP 증가율보다 3% 포인트 낮음.

- 현재 온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은 浙江省 내 주요 도시 중 제2위로 떨어졌음.

□ 온주지역 성장률 둔화의 주요인은 산업클러스터, 민간자본, 기업의 혁신능력 등 과거 동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 경쟁우위가 최근들어 약화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음.

□ 첫째, 비용 상승, 경영활동 곤란 등의 이유로 다수의 온주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클러스터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.

- 온주지역의 토지자원 부족과 요소경직성, 영업비용 상승 등 비용측면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을 찾아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있음.

○ 온주의 토지가격은 上海 외각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, 여타지역의 경우 저렴한 토지비용과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음.

○ 인재 부족문제도 심각한바, 온주의 전문기술인력은 전체 온주시 인구의 1.26%에 불과한 10만 명에 그쳐 浙江省 전체의 평균치인 2.3%보다 크게 낮음.

- 특히 온주지역 민영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경공업기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 및 토지비용이 싼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.

- 최근 타지역으로 이전한 주요 온주기업은 1,000여 개가 넘으며, 그 중 자산규모 100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기업은 2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.
- o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온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투자한 금액은 1,050억 위안에 달하는 반면, 온주지역에 대한 외자 유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.

□ 둘째,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지체되면서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족하여 민영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.

- 개혁개방 초기에는 정부의 암묵적인 통제 완화만으로도 민영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, 현재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- o 시장의 발전과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융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제한되어 있음.

- 온주 민영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많아 외자 유입이 많지 않은데, 이는 오히려 온주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
□ 셋째, 온주지역 기업들의 혁신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.

- 온주지역은 최초의 농촌 信用社 설립, 민영기업조례 및 주식합작제 관련 지방 행정법규 제정, 이자율 개혁 및 小城鎮 건설, 해외시장 개척 등을 주도한 바 있으나, 90년대 중반 이후 이같은 혁신적인 개혁은 점차 줄어들었음.

□ 특히 최근 온주기업의 타지역 이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군의 집단적인 이전, 자본과 연계된 산업 전체의 이전, 신흥 성장산업 이전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이에 따라 향후 온주지역의 산업공동화가 우려됨.

3. 온주기업의 타지역 이전의 원인

- 온주 樂清시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에 따르면, 최근 타지역으로 이전한 85개 기업 중 외부 경영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전한 기업이 51%를 차지함.
 - 반면 기업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위해 이전한 기업은 21개로 24.7%를 차지하고, 공업용지 부족으로 이전한 기업은 21개로 24.7%를 차지함.
- 온주시 지방정부는 온주기업의 이같은 타지역 이전에 대해서 “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벗어나서 어항 밖에서 키운다”는 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, 경영환경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.
 - 2000년 온주시 政協이 실시한 투자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, 기업은 정부의 무분별한 비용징수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지방정부의 심사 및 비준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온주 민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련 협회도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.
 - 온주시 工商聯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 온주시에는 각종 상회, 협회가 163개가 있으며, 그 중 市급은 92개, 區급은 71개임.
 - 협회는 동종업계 기업간의 협조, 국제적인 무역마찰에 대한 공동대응, 동종업계 기업의 이익보호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, 정치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상회 설립을 위해서는 총상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, 이로 인해 상회가 정부 부처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 - 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은 대부분 전직 혹은 현직 經貿委 관료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.
 - 또한 산하 민영기업으로부터 협회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.

- 온주 민영기업이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기초한 기업의 철저한 경영체제 개혁과 정부의 제도적인 환경 정비가 관건임.(***)